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

BRIEF

vol.1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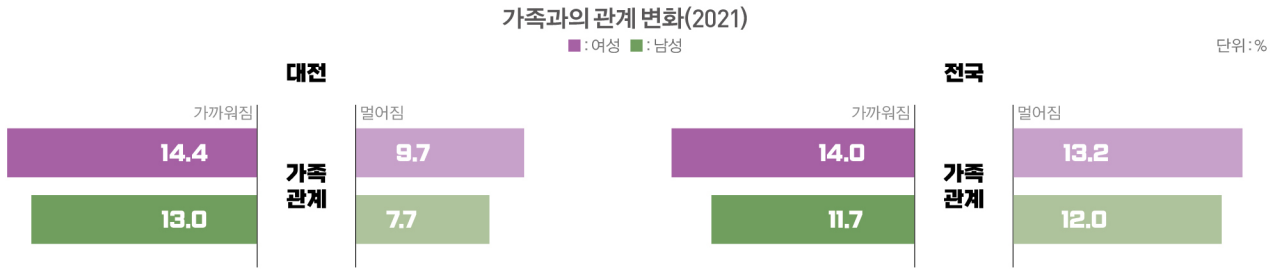
발행인 | 정재근 편집위원 | 류유선·이유라 발행일 | 2021. 12. 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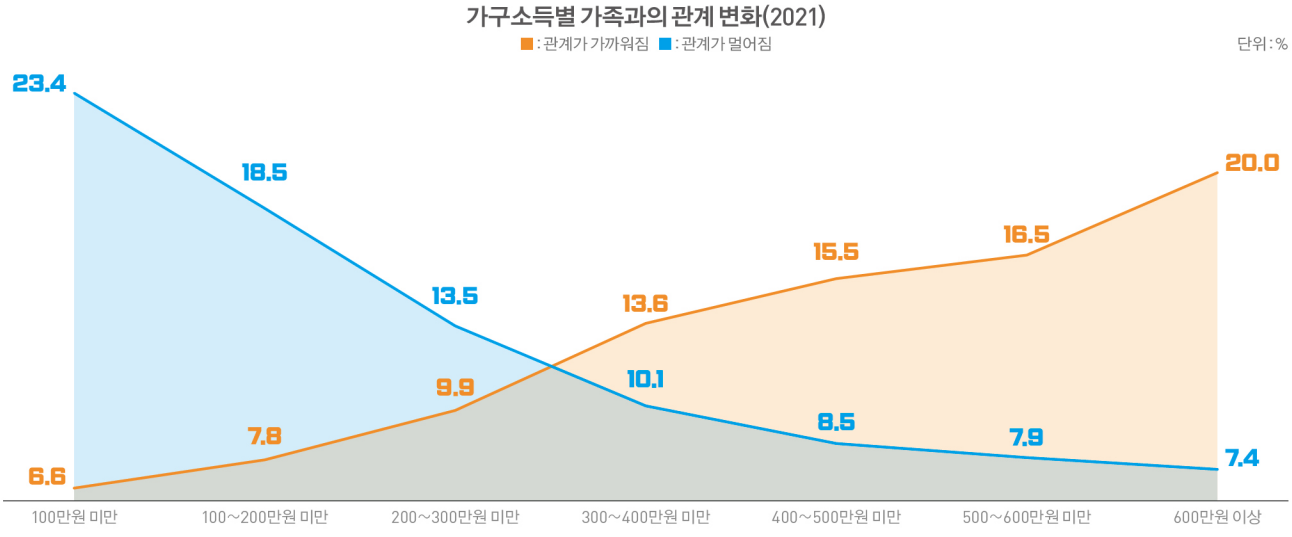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가 덮친 사회
가구소득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?

2020년 발병한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,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다.
2년간의 팬데믹 속에서 일상의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. 지난 11월 통계청에서 『2021년 사회조사』 결과를 발표했다.
2년 주기로 하는 본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'사회적 관계', '재택근무', '소비생활'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.
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삶의 질과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
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눈여겨보고자 한다.

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, 가구소득 높을수록 가까워지고 낮을수록 멀어지고

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한 대전 남성 13.0%, 여성 14.4%로 남성보다 1.4%p 높다. 여성과 남성 모두 멀어졌다는 응답보다 높다. 전국의 경우, 여성은 가까워졌다(14.0%)는 비율이 멀어졌다(13.2%)는 비율보다 높지만 남성은 멀어짐(12.0%)에 응답한 비율이 가까워짐(11.7%)에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.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,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고,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. 코로나19 이후 소득수준에 따른 가족관계의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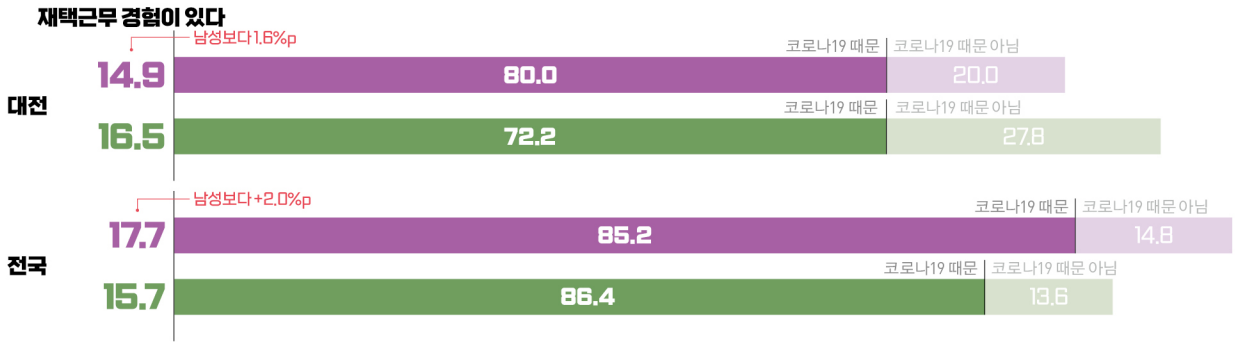
1) 현재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의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가구소득별은 대전 데이터가 아닌 전국 데이터를 활용함
* '변화 없음'과 '해당 없음'은 제외함
* 출처: 통계청, 『2021 사회조사』

코로나19 발생기간 동안, 가구소득 높을수록 재택근무 비율 높아

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를 한 대전 남성 16.5%, 여성 14.9%로 남성보다 1.6%p 낮으며, 재택근무를 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 80.0%, 남성 72.2%였다. 대전 여성의 재택근무 비율은 전국보다 낮은 반면, 남성은 높다.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재택비율은 29.9%로 100만원 미만 가구(5.6%)보다 24.3%p 높고,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다.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택근무 경험률이 높고,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택근무 경험률은 낮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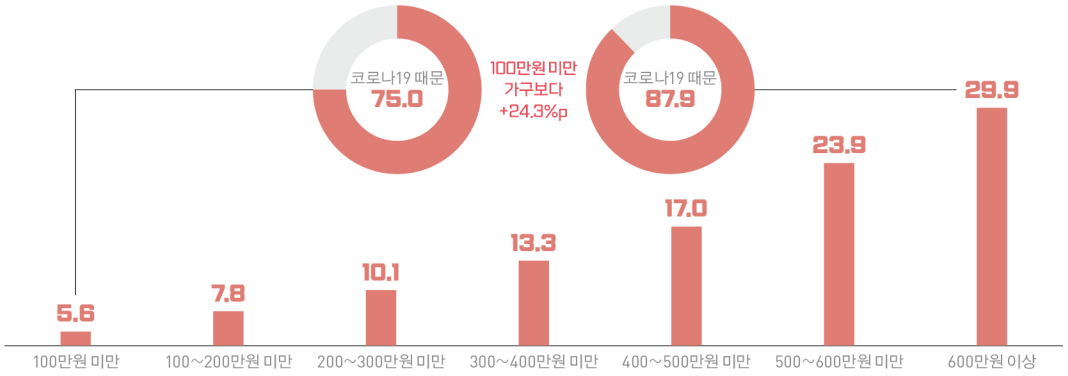
재택근무 경험률 및 코로나19 관련 여부(2021)

■: 여성 ■: 남성 단위: %



가구소득별 재택근무 경험률 및 코로나19 관련 여부(2021)

단위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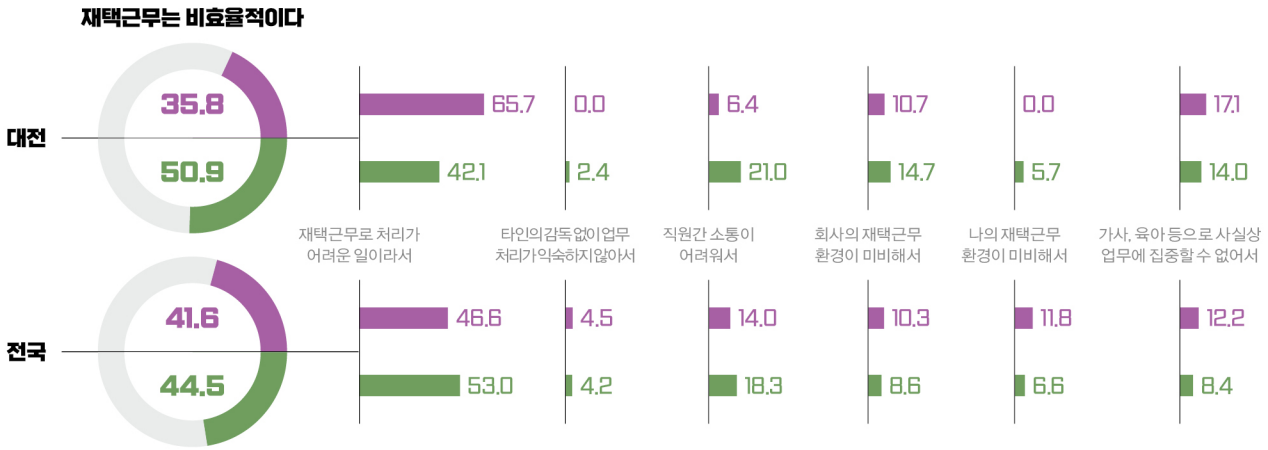


재택근무 비효율적인 이유, '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'가 가장 많아

재택근무 경험자 중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대전 여성 35.8%, 남성 50.9%로 여성보다 15.1%p 높다. 주된 이유는 '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'(여성 65.7%, 남성 42.1%)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. 그다음 여성은 '가사, 육아 등으로 사실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'(17.1%), 남성은 '직원간 소통이 어려워서'(21.0%)가 뒤를 이었다.

재택근무 효율성 여부 및 비효율적인 이유(2021)

■: 여성 ■: 남성 단위: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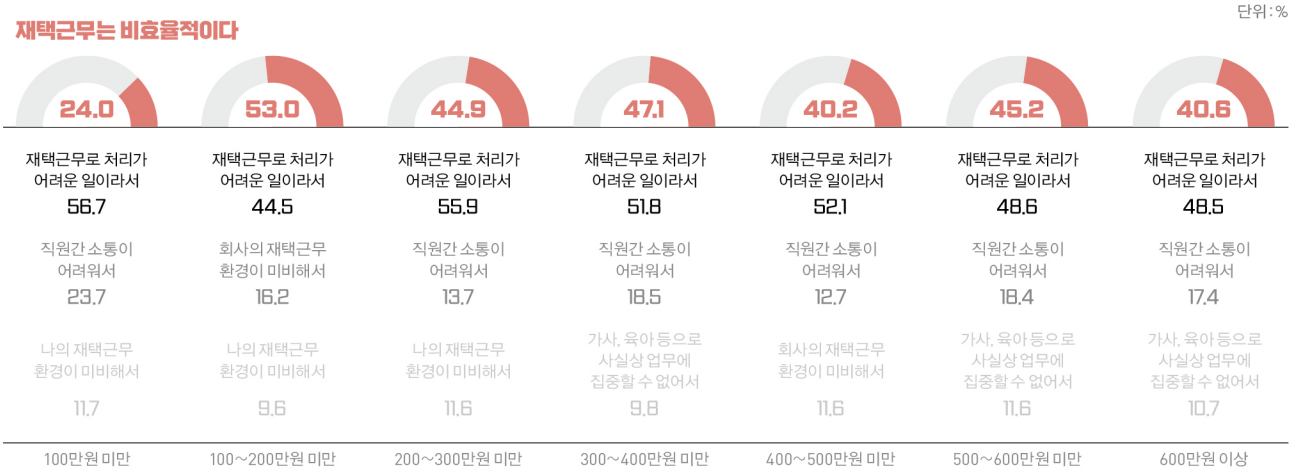
* 조사대상: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인구
* 주된 응답(1순위만을 집계) 자료임
* 비효율적인 이유에서 '기타' 항목은 제외함
* 출처: 통계청, 『2021 사회조사』

재택근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, 가구소득 100~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아

가구소득별 재택근무 효율성 여부를 보면,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구소득은 100~200만원 미만이 53.0%로 가장 높다. 모든 가구소득이 비효율적인 이유로 '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'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. 이어서 100~2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 '직원간 소통이 어려워서'가 높게 나타났다.

가구소득별 재택근무 효율성 여부 및 비효율적인 이유(2021)

단위:%



* 조사대상: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인구
* 주된 응답(1순위만을 집계) 자료임
* 비효율적인 이유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으며, 상위 3위까지만 제시함
* 출처: 통계청, 『2021 사회조사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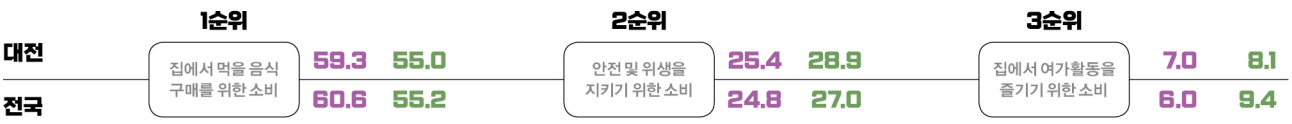
소득이 높을수록 '집에서 여가활동'과 '정서 만족'을 위한 소비 비율 높아져

대전시민들의 소비생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'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'가 남성 55.0%, 여성 59.3%로 남성보다 4.3%p 높다. 뒤이어 '안전 및 위생을 위한 소비'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. 가구소득별로도 순위는 동일했다. 특이점은 소득이 높을수록 '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'와 '정서 만족을 위한 소비'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 소득이 낮을수록 '안전 및 위생을 지키기 위한 소비'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.

소비생활 변화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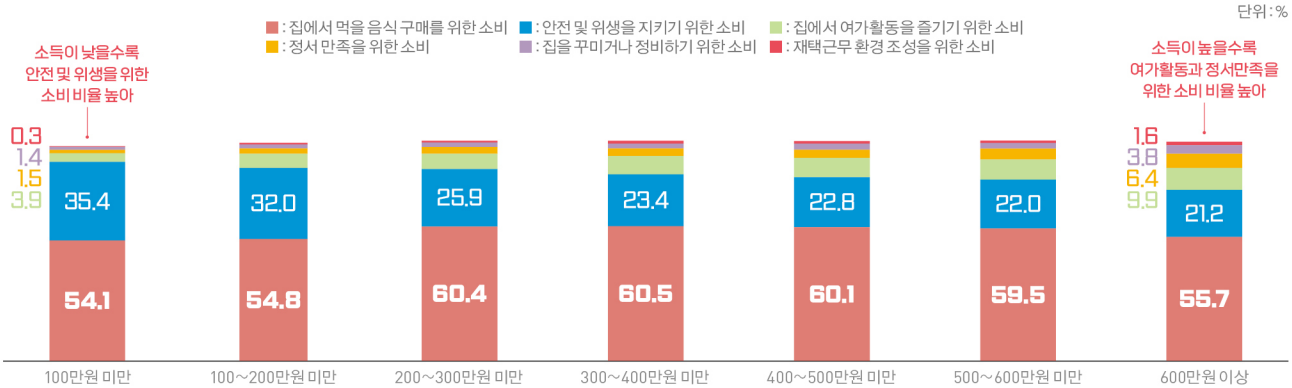
■:여성 ■:남성

단위:%



가구소득별 소비생활 변화(2021)

단위:%



* '기타' 항목은 제외함
* 소비생활 변화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으며, 상위 3위까지만 제시함
* 출처: 통계청, 『2021 사회조사』